

#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효과

김정희<sup>1</sup>, 안황란<sup>2\*</sup>, 편순남<sup>3</sup>

<sup>1</sup>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sup>2</sup>경상대학교 간호대학, <sup>3</sup>진주교육대학교대학원

##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for Competency Enhancement in Nursing Students

Jung-Hoi Kim<sup>1</sup>, Hwang-Ran Ahn<sup>2\*</sup>, Soon-Nam Pyoun<sup>3</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Gyeong Nation University

<sup>3</sup>Graduate School of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고, 참여자는 24명의 간호대학생 중 실험군 10명, 대조군 14명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실험군을 대상으로 주 1회 90~120분 10주(9회기) 동안 시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2$  test, t-test 및 two-way ANOVA 등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전체 역량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0.62, p=.001$ ). 그리고 역량의 구성 요소 중 기본 역량( $F=8.74, p=.001$ )과 실천 역량 ( $F=8.58, p=.001$ ) 점수는 차이가 있었으나, 결과 역량인 시민성 역량( $F=.229, p=.797$ )은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역량(기본역량과 실천역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for competency enhancement in nursing students.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for the study were 24 nursing students, 10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4 in the control group. This Program was conducted on the experimental group once a week for 90~120minutes/session during 10weeks(9session).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with  $\chi^2$  test, t-test and two-way ANOVA. As a result, Participants in the bibliotherapy reported significantly different in total competency( $F=10.62, p=.001$ ) scores from those in the control group. Components of competenc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asic competencies( $F=8.74, p=.001$ ) and Practical competencies( $F=8.58, p=.001$ ) scores, but the Results competence in citizenship competency( $F=.229, p=0.797$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is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competency(basic competencies and practical competencies) for nursing students. Therefore, this approach is recommended as enhance the competency strategy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 Bibliotherapy, Competency, Components of competence, Competency Enhancement, Nursing studen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OECD, UNESCO, APEC 등의 국제기구 및 주  
요 선진국 교육연구기관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산업사회의 지적인 능력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21

\*Corresponding Author : Hwang-Ran Ahn(Gyeong Nation Uni)

Tel:+82-55-772-8247 email: [hrahn@gnu.ac.kr](mailto:hrahn@gnu.ac.kr)

Received September 21, 2015

Accepted October 8, 2015

Revised (1st October 2, 2015, 2nd October 7, 2015)

Published October 31, 2015

세기 역량의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1-3], 국내의 국가 교육연구기관에서도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의 핵심 개념이 ‘지식’에서 ‘역량’으로 바뀌고 있어, 미래 인재가 가져야 할 핵심역량을 찾아내어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 based curriculum)이 우리나라 미래 인재 육성 정책의 방향임을 보고하고 있다[4, 5]. 또한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에서 역량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기능 중의 하나이고[6], 대학생의 역량 강화는 개인의 삶에 성공적인 발전을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직업인 및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도움 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4-6]. 이처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역량 개발과 역량 강화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어 대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7].

간호교육의 고등교육기관인 간호대학은 간호대학생에게 졸업과 동시에 전문직간호사로서 역할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해 왔으나, 간호실무 현장과 간호교육 지식 사이에 괴리로 간호실무 현장의 신규간호사 재교육에 대한 시간 및 비용 손실 발생이 높았으며[8, 9], 졸업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은 현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8, 10]. 또한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의료 소비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핵심역량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8, 9]. 따라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11]은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각 간호교육기관마다 간호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목표 및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운영과 간호대학생을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간호대학생의 적응을 돕는 비교과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미래 인재 육성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간호대학생의 삶의 여러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추후 보건의료인으로서 실무 현장에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는 경험을 제공 할 것이라 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 졸업생의 역량 중 인성적 역량과 인문학적 역량의 함양이 매우 강조되어, 전체 역량을 고루 개발하는 ‘폭넓은 독서’을 권장하고 있고[12], 대학 내 독서 환경 조성 및 인프라를 구축으로, 인문학적 교양이 풍부하고 참인성적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12,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독서치료는 **Bibliotherapy**이라 하며 책을 통해 사람의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인 부적응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임상·상담 심리학의 한 분야로, 다양한 자료를 읽고, 다양한 활동과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14]. 또한 독서치료는 인간의 정보처리 전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내담자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며, 깨달은 바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서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준다는 치료적 효과[14-17]있어, 간호대학생들의 역량 개발 및 핵심 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후기 청소년인 간호대학생은 고등 정신 능력으로서 언어적 사고 기능이 완성하는 시기[17, 18]이므로 언어를 도구로 하는 독서치료의 유용성이 크고, 통합적인 접근이 용이 할 것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이 교수-학습의 시작점(entry point)에서는 교수-학습 목표가 되며, 교수-학습이 끝나는 종착점(terminal point)에서는 학습 성과가 된다는 역량모델[19]을 근거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에게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각 핵심 역량의 요소가 개발하도록 프로그램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성과의 도달 정도는 프로그램 종결 후 역량의 변화 측정함으로써, 역량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추후 보건의료인으로서 실무현장에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도모하는 기여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역량 수준 정도를 파악한다.
-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 1.3 연구가설

가설 1 :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역량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높을 것이다.

부가설 1-1 :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기본 역량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높을 것이다.

부가설 1-2 :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실천 역량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높을 것이다.

부가설 1-3 :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결과 역량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높을 것이다.

### 1.4 용어의 정의

#### 1.4.1 역량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요구들을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인지적인 측면과 비인지적인 측면을 포함)을 동원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20]. 본 연구에서는 권일남과 김태형[21]이 개발한 ‘청소년 활동 역량 척도’로 측정된 총 역량 점수를 말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역량이 높다고 본다.

#### 1.4.1 핵심역량

핵심 역량이란 개인의 성공적인 생활과 행복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삶의 여러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들 누구에게나 중요한 역량이 다[20]. 본 연구에서 핵심 역량은 ‘청소년 활동 역량 척도’의 8개 하위요인인 자아역량, 신체역량, 갈등조절역량, 문제해결역량, 성취동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역량, 시민성역량 등을 기본 역량, 실천 역량, 결과 역량의 3단계의 역량 구성 요인으로 분류하여[22], 분석한 점수를 의미한다. 각 핵심 역량별 총점이 높을수록 핵심 역량이 높다고 본다.

#### 1.4.2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

독서치료이란 다양한 자료를 읽고 다양한 활동과 구

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14].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에게 역량 모델[20]을 기반으로, 주 1회, 120분씩, 9회기이고, 8가지 핵심 역량 증진을 프로그램 학습목표로 설정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Fig. 1].

Total (N=24)	Pre-test 1 week	1-10week	Post-test 1 10week	Post-test 2 14week
Exp.(n=10)	E1	X	E2	E3
Con.(n=14)	C1		C2	C3

Exp.: Experimental group ; Con.: Control group  
 E: Measure of dependent variable in Experimental group  
 C: Measure of dependent variable in Control group  
 X: Bibliotherapy

Fig. 1. Research design

###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J시에 소재하는 2개 4년제 대학교 간호대학생으로, 실습경험이 없는 2학년생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실험 확산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으로 선정하였고, 외생 변수는 동질성 검증으로 통제 하였다.

본 연구에 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효과크기가 모든 영역에서 .80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집단구성원의 크기는 11명~19명의 사례수가 가장 많았다[23]. 이명희의 연구[24]에서는 5-6명이 가장 많고, 선행 연구의 60%이상 5명 내외로 적은 인원이 참가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 치료 프로그램이 소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을 때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G\* Power 3.1 프로그램의 반복측정 분산분석[26, 27]에서 큰(Large) 효과크기(f) = .40, 검증력(1-β) = .80, 유의수준(α) = .05

으로 계산한 결과, 최소 대상자수는 1개의 집단 당 8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탈락률 20%를 고려하고, 본 연구에 참여 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G대학교 간호대학생 14명은 실험군, H대학교 간호대학생 14명은 대조군으로 총 28명을 선정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 중 실험군의 2명이 참여 거부하여 중도 탈락하였고, 2명은 참여는 모두 마쳤으나, 2회 이상 결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총 4명이 탈락하였다. 따라서 최종 참여대상자는 실험군 10명, 대조군 14명으로 총 24명이었으며, 탈락률은 14.28%(4명)이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역량과 핵심 역량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역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권일남과 김태형[21]이 개발한 총 4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활동 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8개의 역량요소로 자아역량(6문항), 신체역량(5문항), 갈등조절역량(6문항), 문제해결역량(5문항), 성취동기역량(5문항), 대인관계역량(4문항), 리더십역량(4문항), 시민성역량(7문항) 등을 제시하고 있고, 5점 Likert 척도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핵심 역량의 점수는 ‘청소년 활동 역량 척도’로 측정된 총역량 점수에서 기본 역량, 실천 역량, 결과 역량으로 분석한 점수를 의미한다. 문항 총점이 높을수록 핵심역량이 높다고 본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 연구에서 8개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 .86 \sim .56$ 으로, 자아역량이 가장 높고,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낮았다[21].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사전 조사에서 Cronbach's  $\alpha .91 \sim .58$  이었고, 사후 조사에서는 Cronbach's  $\alpha .92 \sim .38$  나타났으며, 도구 개발 연구에서와 같이 자아역량이 가장 높고, 대인관계역량이 가장 낮았다.

## 2.4 연구진행절차

### 2.4.1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대상자의 선정(실험군, 대조군), 사전조사(실험군, 대조군), 독서치료 실시(실험군), 1차 사후 조사(실험군, 대조군), 2차 사후조사(실험군, 대조군), 결과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Figure. 1].

연구 기간은 2014년 3월 21일부터 2014년 6월 20일

까지로, 이중 실험처치 기간은 2014년 3월 21일부터 2014년 5월 24일까지 10주간(매주 금요일 4~6pm) 진행되었다.

간호대학생에게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 후, 역량 정도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도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고[18, 19], 본 연구의 내용이 독서 활동과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집단 활동 프로그램임으로, ‘청소년 활동 역량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도구 개발자(권일남)에게 본 연구의 계획을 자문 받은 결과, 간호대학생에게 적용된 사례는 전무하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적용 후 그 효과를 측정된 선행연구의 사례가 다수임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의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연구 도구는 권일남과 김태형[21]의 연구와 권일남과 최창욱[22]의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 기준에 따라 청소년 활동 역량과 핵심역량을 간호대학생의 역량과 핵심역량으로 측정하였고,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함을 서면으로 허가 받았다.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1주차 1회기 시점에 연구자가 직접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각각 측정하였고,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 등의 시간을 제외한, 참여자의 검사지 작성 시간은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대조군은 검사지 작성 종료 후 차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사후조사에 대한 시점을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제공 하였다. 실험처치는 실험군에 한하여 1주차 사전 조사 종료 후 연속하여 1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주 1회, 90-120분, 9회기의 독서치료를 10주 동안 진행하였다. 진행 도중 5회기는 5주차 시점이 중간고사 시험 시간과 겹쳐 일정 조정이 어려워, 1주간 연기하여, 6주차 시점에 5회기를 진행하였다. 사후 조사는 10주차 9회기 시행 직후, 종결과정에서 실시하였다. 추수조사는 실험처치의 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인 실험처치 종료 4주(14주차) 기간이 지난 뒤 측정하였다[Figure. 1].

### 2.4.2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대학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No: GIRB-G4-Y-0004)을 받았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가 속한 각 간호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계획서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

보서를 제출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효과 등을 설명한 후, 서면 허가를 받았다. 참여자 모집은 학과 게시판의 알림글로 홍보와 지도교수 추천 등을 받았다. 이 중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만 선발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자 자신을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 및 수집한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의 보관방법과 연구 참여 도중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총 7개의 도서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였고,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설문지 작성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과 본 연구가 끝난 뒤, ‘소통 능력 및 리더십 함양’이라는 주제로 참관남 카드요법을 1회 제공 하였다.

### 2.4.3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23, 24]을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횟수는 10회-12회기, 이용 자료수는 10건 이내가 50% 이상 과반수를 보였고, 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73.8%로 절대 다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회기(session)는 효과크기가 가장 크고, 사례수가 많다고 보고된 10회기를 계획 했으나, 시험 기간과 학과 행사 참여 등의 이유로 5회기의 진행이 1주간 연기되었고, 종결과정을 9회기 시행 직후 실시되어, 당초에 계획 했던 10회기 프로그램을 9회기로 수정·진행하게 되었다.

시간 구성은 선행 연구[23, 24]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90분~120분으로 하였고, 회기별 주제와 상황에 따라 치료적 발문의 시간이 40분~70분 이내로 진행 시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독서치료에 사용된 도서는 선행연구[21-25]을 검토 후, 연구자 3인이 연구목적에 맞게 선정한 도서를 정신간호학 교수 1인, 문학치료를 전공한 상담사 1인,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검토 받아, 최종 프로그램의 구성을 완성 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사용된 도서는 총 7개이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Book No. 1 :작은 기쁨, 이해인, 열림원 (2008)

Book No. 2 :이무석의 마음, 이무석, 비전과 리더십 (2011)

Book No. 3 :회복탄력성, 김주환, 위즈덤하우스 (2011)

Book No. 4 : 간호사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안황란 외, 포널스(2011)

Book No. 5 :하버드 대 52주 행복연습, 탈 벤-샤하르, 위즈덤하우스(2010).

Book No. 6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주디 L. 해즈테이, 명진출판사(2010).

Book No. 7 :닉 부이치치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닉 부이치치, 두란노(2013).

연구자 2인은 정신간호학을 전공한 교수이고, 1인은 교육심리와 간호학을 전공했고,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 독서심리상담사인 연구자가 주진행자였고, 연구자 2인은 보조 진행자로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독서치료는 동일화, 카타르시스, 통찰의 3가지 중요한 단계 거치는 치료적 발문을 통하여, 참여자의 개인에 대한 통찰과 자기이해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개인의 통찰은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치료적 원리가 작용되어 참여자의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4-16]. 이와 같은 독서치료의 원리를 적용하여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한 회기의 프로그램 순서는 시작-이야기 음미하기-치료적 발문-소감나누기-다음 회기 안내 단계 순으로 진행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Progression of a session

Stage(time)	Activity
Opening (10min)	- Today's progress guidance
Storytelling (15min)	- Giving some time to review the book
To promote epilogue (40~70min)	I: A identification to promote epilogue II: A catharsis to promote epilog-ue III: A insight to promote epilogue
Sharing comment (15min)	- Feedback between of the participants - Summary of the facilitator
Next session guidance (10min)	- Giving information about next session - Working of worksheet

시작단계(Opening)의 ‘오늘의 진행내용을 소개’는 진행자가 회기별 주제와 진행 순서를 설명하였으며, 참여자간의 친밀감을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야기 음미하기 단계(Storytelling)는 도서의 가독성(rasdability) 정도를 파악하며, 도서는 미리 읽어 오도록 격려하되, 읽

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도서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다시 책의 내용을 음미하여 발문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15분 정도의 읽는 시간을 제공 하였다. 치료적 발문단계(To promote epilogue)는 독서치료를 치료적 원리인 동일화-카타르시스-통찰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질문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매 회기 역량의 주제에 따라 치료적 발문의 소주제를 달리하여 참가자의 심리적 역동이 일어나도록 격려했다. 소감나누기 단계(Sharing comment)는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고, 진행자의 전문적 견해를 제공하여 깨달은 바를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격려했다. 다음 회기 안내단계(Next session guidance)는 다음 회기의 주제와 읽어야 할 도서를 안내하며, 도서의 읽을 분량과 단락을 자유롭게 선택 하도록 설명 하였다.

Table 2. Contents of 9-Session Bilbliotherapy

P*	Competency (book No.)	Subject & Activity
1	Relationship (No.1) :90min	Orientation : · Introduce program objectives and process · The guide to rules, secrecy, and instructions for the program, and writing a pledge · Giving you self a nick name and making a name tag with it · Introduction of himself & Motivation division · Pre-test measurement · Reading poetry · Next session guidance
2	ego esteem (No.2)	I: Find me in the book (story) II: Explore for mind III: Insight through build up me
	physical (No.3) :120min	I: While reading the story of my sensation II: express for hurt with the cause of mind III: How to use story to improve my bodys
4	conflict management (No.4) :120min	I: While reading the story of my conflict II: express for stress with the cause of mind III: How to use story to improve my stress
5	Problem solving (No.5) :120min	I: search for the Defence Mechanisms for my mind II: Understanding the unbearable emotions III: Find coping strategies in the book (story)
6	Achievement Motivation (No.6) :120min	I: Find desires and motives in the book (story) II: Explore for the joy of success III: Insight through build up me

7	Interpersonal relationship (No.6) :120min	I: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s in the book II: conversation with person in the book (story) III: Think about my relationships
8	Leadership (No.7) :120min	I: To talk about leadership II: What do you want readers III: Preparation to become a leader
9	Citizenship (No.7) :90nim	I: To talk about citizenship II: humanity, what is universal human values and issues III: What do you have to go and live as a contribution to health professionals
	Ending (No.1) :30min	- Feedback between of the participants - Finishing for program · Reading poetry · Post-test measurement

P\*=Phase

그리고 당 회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배운 점, 느낌 점, 실천할 점을 worksheet에 작성 한 후 종료 하였다. 따라서 한 회기의 진행순서의 틀은 Table 1와 같이 유지하면서, 8개의 역량을 주제로 회기별 치료적 발문의 소주제만 달리 구성하여 진행하였다[Table 2].

프로그램의 회기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회기의 관계 형성은 프로그램을 소개, 참여자간의 규칙 약속, 동기부여 등 신뢰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였고, 2회기의 자아역량은 나 자신을 가치 있다고 잘 믿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분노나 좌절 등을 잘 통제하는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3회기의 신체역량은 자신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였고, 4회기의 갈등조절역량은 가족과 학업 등의 불만과 갈등을 잘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5회기의 문제해결역량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효율적 행동을 찾아내어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을 활성화 시키고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반적인 대처 전략으로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6회기의 성취동기역량은 성공하고자하는 욕구로서, 목표를 정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나 방향성을 지닌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였고, 7회기의 대인관계역량은 자신의 권리, 요구, 만족, 의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적 능력과 자신의 바람을 수행하되 타인의 권리, 요구, 만족, 의무를 손상시킴이 없이 행하는 기술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8회기의 리더십역량은 자신의 책임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자신감을 표명하며

집단 내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였다. 9회기의 시민성역량은 인간의 보편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세계적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의지, 세계지향성 등을 증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역량의 하위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4명으로,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별 정규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 값을 살펴본 결과, 절대값이 1.0보다 작아 정규분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25이하인 경우의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가 더 의미 있으므로 [28],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 .05 보다 높았고, Q-Q 도표에서 데이터들이 직선에 가까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별 동질성 검정은 한 그룹의 대상자수가 5이하인 경

우는 비모수 검정인 Fisher's exact test로 5 이상인 경우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 전 동질성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독서자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가설검정은 paired t-test,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및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산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동질성 검증

####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은 실험군 10명, 대조군 14명으로 총 24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가 9명(37.5%), 여자가 15명(62.5%)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21.76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16명(67.7%)이었으며, 스트레스 상황 시 문제 해결대처방법으로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17명(70.8%)으로 가장 많

Table 3. Homogeneity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4)	Exp. (n=10)	Cont. (n=14)	$\chi^2$	p
		n(%)	n(%)	n(%)		
Gender	Male	9(37.5)	5(50.0)	4(28.6)	1.14	.285
	Female	15(62.5)	5(50.0)	10(71.4)		
Age(year)	20~25	21.76±1.47	21.60±1.26	21.93±1.68	-.520	.609
Religion	None	8(33.3)	2(20)	6(42.9)	3.771	.287
	buddhist	9(37.5)	3(30)	6(42.9)		
	Catholic	3(12.5)	2(20)	1(7.1)		
	Christianity	4(16.7)	3(30)	1(7.1)		
Stress coping	Mix focused coping	17(70.8)	6(60)	11(78.6)	1.03	.597
	Emotion -focused coping	5(20.8)	3(30)	2(14.3)		
	Problem-focused coping	2(8.3)	1(10)	1(7.1)		
Motivation of admission	Job possibility	8(34.8)	3(30)	5(38.5)	.256	.968
	Belief of nursing	7(30.4)	3(30)	4(30.8)		
	Recommendation of parent	6(26.1)	3(30)	3(23.1)		
	Admission Possible scores	2(8.7)	1(10)	1(7.7)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ied	10(41.7)	5(50)	5(35.7)	2.321	.313
	Neutral	13(54.2)	4(40)	9(64.3)		
	Dissatisfied	1(4.2)	1(10)	0		
Classmate relationship	Very Satisfied	3(12.5)	1(10)	2(14.3)	.386	.425
	Satisfied	14(58.3)	6(60)	8(57.1)		
	Neutral	5(20.8)	1(10)	4(28.6)		
	Dissatisfied	1(4.2)	1(10)	0		
	Very Dissatisfied	1(4.2)	1(10)	0		

Exp. = Experimental group ; Cont. = Control group. ; \* Fisher's exact test

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로는 취업률 인한 경우 8명(34.8%), 간호에 대한 신념 7명(30.4%), 부모님의 권유 6명(26.1%), 입학성적을 고려한 경우 2명(8.7%)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 13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동기생과의 관계는 ‘만족한다’ 14명(58.3%), ‘보통이다’ 5명(20.8%), ‘매우 만족한다’ 3명(12.5%), ‘만족하지 못한다’ 1명(4.2%),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1명(4.2%)순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chi^2$ -test로 검증한 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3.1.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역량 정도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평균은 151.2점, 대조군의 평균은 146.64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631, p=.535$ ), 역량의 구성요소인 기본 역량( $t=.417, p=.680$ ), 실천 역량( $t=.336, p=.740$ ), 결과 역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와 하위요인인 자아역량( $t=-.379, p=.708$ ), 신체역량( $t=.988, p=.334$ ), 갈등조절역량( $t=.561, p=.580$ ), 문제해결역량( $t=-.300, p=.767$ ), 성취동기역량( $t=-.010, p=.992$ ), 대인관계역량( $t=-.096, p=.924$ ), 리더십역량( $t=1.316, p=.202$ ), 시민성역량( $t=1.433, p=.166$ )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서로 동질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4].

## 3.2 가설 검증

### 3.2.1 가설 1 검증

본 연구의 가설 1은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역량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실험 처치 전 사전 조사에서 역량 점수의 평균은 151.2점이었고, 9회기의 실험 중재 직후인 10주차에 사후 조사1을 실시한 결과, 163.7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실험처치 종료 4주 후(14주차) 사후 조사 2를 실시한 결과 163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사전 조사에서 역량 점수의 평균은 146.64점이었고, 10주 후 사후 조사1을 실시한 결과, 144.64점으로 낮아졌으며, 14주 후 사후 조사 2를 실시한 결과 151.5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역량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의 전체 역량

( $F=3.41, p=.008$ )과 시기에 따른 전체 역량( $F=14.49, p=.000$ )에 차이가 있었고, 시기와 집단 간의 교호작용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 $F=10.62, p=.000$ )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5].

Table 4. Homogeneity in Dependent Variables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24)

Variables	Exp. (n=10)	Cont. (n=14)	t	p
	M±SD	M±SD		
Total Competency	151.20±19.14	146.64±16.16	.631	.535
Basic competencies	38.80±6.76	37.71±5.93	.417	.680
-Self C.	23.40±3.16	23.92±3.49	-.379	.708
-Physical C.	15.40±4.55	13.78±3.46	.988	.334
Practical competencies	88.40±12.14	86.93±9.35	.336	.740
-Dispute-settling C.	19.80±4.56	18.71±4.74	.561	.580
-Problem solving C.	20.2±3.76	20.64±3.41	-.300	.767
-Motivation C.	17.70±3.30	17.71±3.62	-.010	.992
-Interpersonal relationship C.	15.20±1.98	15.28±2.26	-.096	.924
-Leadership C.	15.50±2.32	14.57±1.08	1.316	.202
Citizenship C.(=Result competency)	24±3.09	22±3.55	1.433	.166

Exp. = Experimental group ; Cont. = Control group.  
C.= Competency

### 3.2.2 부가설1-1 검증

본 연구의 부가설 1-1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기본 역량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실험 처치 전 사전 조사에서 기본 역량 점수의 평균은 38.8점이었고, 9회기의 실험 중재 직후인 10주차에 사후 조사1을 실시한 결과, 43.6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실험처치 종료 4주 후(14주차) 사후 조사 2를 실시한 결과 42.7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사전 조사에서 기본 역량 점수의 평균은 37.71점이었고, 10주 후 사후 조사1을 실시한 결과, 37점으로 낮아졌으며, 14주 후 사후 조사 2를 실시한 결과 38.79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 역량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F=3.20, p=.087$ )과 시기에 따른( $F=8.09, p=.001$ ) 차이가 있었고, 시기와 집단 간의 교호작용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기본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 ( $F=8.74, p=.001$ )으로 나타나 부가설 1-1은 지지되었다 [Table 5].

### 3.2.3 부가설1-2 검정

본 연구의 부가설 1-2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실천 역량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실험 처치 전 사전 조사에서 실천 역량 점수의 평균은 38.8점이었고, 9회기의 실험 중재 직후인 10주차에 사후 조사1을 실시한 결과, 43.6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실험처치 종료 4주 후(14주차) 사후 조사 2를 실시한 결과 42.7점으로 나타났다. 프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사전 조사에서 실천 역량 점수의 평균은 37.71점이었고, 10주 후 사후 조사1을 실시한 결과, 37점으로 낮아졌으며, 14주 후 사후 조사2를 실시한 결과 38.79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천 역량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F=3.20, p=.087$ )과 시기에 따른( $F=8.09, p=.001$ )에 차이가 있었고, 시기와 집단 간의 교호작용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천 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 $F=8.74, p=.001$ )으로 나타나 부가설 1-2는 지지되었다 [Table 5].

### 3.2.4 부가설1-3 검정

본 연구의 부가설 1-3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Table 5.**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Groups (N=24)

Variance	Group	Pretest			Posttest1			Posttest2			source	F	p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Total Competency	Exp.(n=10)	151.2±19.14	163.7±15.6	163.10±16.9	Group	3.41	.008						
	Cont(n=14)	146.64±16.16	144.64±14.34	151.5±14.43	Time	14.49	.000						
					Group×Time	10.62	.000						
Basic competencies	Exp.(n=10)	38.8±6.76	43.6±5.48	42.7±5.56	Group	3.20	.087						
	Cont(n=14)	37.71±5.93	37.0±4.76	38.79±4.89	Time	8.09	.001						
					Group×Time	8.74	.001						
-Self C.	Exp.(n=10)	23.40±3.16	25.80±2.20	25.20±2.61	Group	.816	.376						
	Cont(n=14)	23.92±3.49	23.42±2.971	23.92 2.78	Time	4.70	.014						
					Group×Time	8.81	.001						
-Physical C.	Exp.(n=10)	15.40±4.55	17.80±4.63	17.50±3.80	Group	4.02	.057						
	Cont(n=14)	13.78±3.46	13.57±3.03	14.85±3.43	Time	3.90	.028						
					Group×Time	2.56	.089						
Practical competencies	Exp.(n=10)	88.4±12.14	95.7±10.27	96.1±11.15	Group	2.538	.125						
	Cont(n=14)	86.93±9.35	85.0±8.4	89.79±8.54	Time	11.19	.000						
					Group×Time	8.56	.001						
-Dispute-settling C.	Exp.(n=10)	19.80±4.56	22±3.39	22.50±4.85	Group	2.05	.166						
	Cont(n=14)	18.71±4.74	18.28±4.63	19.64±4.95	Time	4.90	.012						
					Group×Time	2.67	.080						
-Problem solving C.	Exp.(n=10)	20.2±3.76	22.40±2.87	22.28±3.04	Group	.024	.877						
	Cont(n=14)	20.64±3.41	20.78±3.35	21.70±3.19	Time	6.13	.004						
					Group×Time	3.49	.039						
-Motivation C.	Exp.(n=10)	17.70±3.3	19.30±3.26	19.00±2.98	Group	1.36	.255						
	Cont(n=14)	17.71±3.62	16.64±3.24	17.28±2.94	Time	.494	.613						
					Group×Time	4.71	.0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C.	Exp.(n=10)	15.2±1.98	15.8±1.87	16.50±2.12	Group	.996	.329						
	Cont(n=14)	15.28±2.26	14.71± 1.68	15.35±1.39	Time	4	.025						
					Group×Time	3.133	0.53						
-Leadership C.	Exp.(n=10)	15.50±2.32	16.2±2.34	16.40±2.17	Group	3.65	.069						
	Cont(n=14)	14.57±1.08	14.57±1.15	15.21±1.31	Time	4.84	.013						
					Group×Time	1.02	.370						
Result competency =Citizenship C.	Exp.(n=10)	24±3.09	24.4±1.89	24.30±1.76	Group	2.34	.140						
	Cont(n=14)	22±3.55	22.64±3.17	22.92±3.40	Time	1	.377						
					Group×Time	.229	.797						

Exp. = Experimental group ; Cont. = Control group C.=Competency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결과 역량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높을 것이다”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실험 처치 전 사전 조사에서 실천 역량 점수의 평균은 24점이었고, 9회기의 실험 중재 직후인 10주차에 사후 조사1을 실시한 결과, 24.4점으로 차이가 없으며, 실험처치 종료 4주 후(14주차) 사후 조사 2를 실시한 결과 24.3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사전 조사에서 결과 역량 점수의 평균은 22점이었고, 10주 후 사후 조사1을 실시한 결과, 22.64점으로 차이가 없으며, 14주 후 사후 조사 2를 실시한 결과 22.9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천 역량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 $F=2.34, p=.140$ )과 시기에 따른( $F=1, p=.377$ )에 차이가 없었고, 시기와 집단 간의 교호작용에서도 실험군 대조군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F=.229, p=.797$ ) 부가설 1-3는 지지되지 않았다[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독서치료를 적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23, 24]을 바탕으로, 매 회기 90~120분씩, 총 9회기의 프로그램을 10주 동안 적용한 후 역량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역량 증진 관련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분석[21-25]을 통해 8가지 역량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회기별 주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진행 방법은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잘 알고,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경험 많은 본 연구팀에 의해 효과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독서치료의 선행연구 분석한 결과, 독서치료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73.8%에 해당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23, 24], 집단상담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 할 때, 독서치료 모델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성이 가장 높게 나왔음[23]을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독서치료 모델이 치료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행방법이 치료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보고한 연구[23, 2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권일남과 김태형[21]의 연구와 권

일남과 최창욱[22]의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 기준에 따라 청소년 활동 역량과 핵심역량을 간호대학생의 역량과 핵심역량으로 측정 하였다. 그 결과,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역량 증진에 효과가 있으며( $F=10.62, p=.000$ ), 특히 8개의 핵심 역량 중 자아역량( $F=8.81, p=.001$ ), 문제해결 역량( $F=3.49, p=.039$ ), 성취동기 역량( $F=4.71, p=.014$ ) 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외적 역량 보다 내적 역량을 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역량은 기본 역량, 실천 역량, 결과 역량으로 구성되어, 이 중 기본 역량은 모든 역량의 요소의 토대로 성장과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실천 역량은 기본 역량을 토대로 자신의 의도적인 사고와 인지적 태도로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행위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활동 능력이며, 결과 역량은 기본 역량과 실천 역량을 통해 21세기의 인재상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결과로서 통합적 역량인 시민적 역량으로 설명 할 수 있다[22]. 따라서 연구 결과에서 기본 역량( $F=8.74, p=.797$ )과 실천 역량( $F=8.74,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결과 역량인 시민성 역량( $F=.229, p=.797$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은 개인능력인 기본 역량과 조직능력인 실천 역량 증진에 효과가 있으나, 사회능력인 시민성 역량에는 효과가 적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가 역량증진에 미치는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추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독서치료를 적용 후 t-검정으로 효과성 검증이 시도되었고 [24], 실험처치의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프로그램 중재 후, 실험의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인 프로그램 종료 4주 시점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분산분석으로 실험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적용 후 역량증진을 확인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관련 프로그램 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와 비교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핵심역량인 기본 역량( $F=8.74, p=.001$ )과 하위 요인인 자아 역량( $F=8.81,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유명미

[29]가 독서치료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41명의 1학년 간호대학생에게 주 2회, 90분씩 총8회, 4주간, 프로그램을 실시 후, 독서치료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임( $t=2.108, p=.041$ ) 보고한 연구와 김수경[30]이 대학생을 위한 독서치료의 적용과 평가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 형성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다. 또한 독서치료를 대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다고[31, 32] 보고한 연구와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시 T-집단훈련, 주장훈련, 계슈탈트 상담 프로그램, 진로상담 등의 여타 프로그램보다 독서치료가 효과적임을 보고한 연구의 결과[23]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치료가 자기이해와 통찰을 이끄는 치료적 도구로서, 내적 역량인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 자신을 가치 있다고 잘 믿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분노나 좌절 등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아역량의 증진은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역량 중 자아역량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된 결과는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중재 효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핵심역량인 실천 역량( $F=8.74, p=.001$ )과 하위 요인인 문제해결 역량( $F=3.49, p=.039$ ), 성취동기 역량( $F=4.71, p=.014$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집단상담 형태로 진행되고, 다양한 자료를 읽으며, 다양한 활동과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14]임으로 나타난 결과라 본다. 집단상담 기법은 개인상담과는 달리 다른 참여자들을 통해서 동일시를 경험하는데, 특히 동료와의 동일시가 많이 이루어지며 열등감이나 부족감 때문에 위축되는 경향이 적어지게 된다[16].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쉽게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와 응집성이 빠르게 발전된다[33].

따라서 치료적 발문(To promote epilogue)단계에서 독서치료의 치료적 원리인 동일화-카타르시스-통찰을 이끄는 치료적 발문 후 참여자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그 결과 참여자가 행동 변화로 문제해결역량과 성취동기역량의 수준이 증가 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해결 역량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효율적 행동을 찾

아내어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을 활성화 시키고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반적인 대처 전략으로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여[22], 이러한 능력은 집단의 역동을 통해 키워지는 역량임으로 본 프로그램이 집단상담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즉, 독서치료의 적용은 참여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안전감을 증진시키기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취동기 역량은 성공하고자하는 욕구로서, 목표를 정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나 방향성을 지닌 능력 [22]을 뜻한다. 본 연구 대상자도 입학동기로 약 35% 정도가 타인의 권유에 의해 입학하였다고 답하였고,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전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입학한 학생인 경우,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과 적용이 어려워 전과나 자퇴를 희망 등 하는 부적응 양상을 나타내[34, 35], 성취동기역량의 증진은 학과 적용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집단상담형태의 독서치료는 경험적인 학습을 제공(동일시)하고, 참여자를 변화시키는 카타르시스와 통찰을 가져와 부정적인 내적 반응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적응 증가시킨다[25, 36]. 이는 삶의 개인적 측면이나, 관계적 측면, 또는 소속집단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외 이명희[25]는 선행 연구를 분석 후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9개 영역으로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정보·기술 활용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력관계 형성능력, 글로벌 역량, 자기 관리 능력, 가치관 및 태도, 리더십을 제시하면서, 9개 영역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 과목을 개발하였는데, 독서 매체를 이용하여 교과목 운영을 후 역량 강화 정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자신감 향상 및 자아정체감 확립에 기여하여 자기관리능력이 강화되었고, 협력관계 형성능력이 향상, 그 외 소통 능력, 배려심과 타인에 대한 이해능력이 향상되어 대학생의 핵심역량 습득에 독서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간호대학생의 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핵심역량인 결과 역량인 시민성 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8.74, p=.797$ ). 이와 같은 결과는 회기 운영시간이 90분으로, 다른 회기에서 120분

으로 운영된 것에 비해 30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독서 치료의 치료적 원리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없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시민성 역량은 인간의 보편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세계적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 의지, 세계지향성 등에 대한 것인데, 독서치료의 적용만으로 역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교육의 패러다임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핵심은 역량이다[19]. 본 연구에서 역량모델[19]을 근거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에게 독서치료를 적용하여, 각 핵심 역량의 요소가 개발하도록 프로그램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성과의 도달 정도는 프로그램 종결 후 역량의 변화 측정함으로써, 역량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독서치료는 지식, 기술, 태도뿐만 아니라, 감정, 가치관, 동기 등의 인지적·비인지적인 능력을 통합하여, 간호대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여 단편적인 간호술기의 숙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간호 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토대로 전인간호의 의미를 확인하고 내면화하여 간호사로서의 자아성취 및 자기이해를 끊임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의 역량 모델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서치료는 미래의 전문직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인 간호대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평생학습 관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생애능력으로서의 직무역량을 함양하는 생애교육(carrier education)제공으로써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 증진 는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간호대학생의 새로운 자아 정체감, 인생관, 사회적 가치관 등을 확립하는 단계에 도움을 주고, 문제해결역량과 성취동기역량의 강화로 대학 생활의 적응을 높일 것이라 생각되어, 역량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독서치료는 인지적·비인지적인 능력을 통합함으로써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운영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간호대학생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적용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모델을 근거 기반으로 독서치료 개발, 적용하여 역량 향상에 효과가 있음( $F=10.62, p=.000$ )을 지지받았다.

역량의 구성 요소인 핵심 역량 중 기본 역량( $F=8.74, p=.797$ )과 실천 역량( $F=8.74,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지를 받았으나, 결과 역량인 시민성 역량( $F=.229, p=.001$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시도한 독서치료가 개인능력인 기본 역량과 조직능력인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효과가 있으나, 사회능력인 시민성 역량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연구 대상자의 수를 늘리고 반복 연구하여 효과성을 다시 재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역량모델을 근거 기반으로 개발한 독서치료가 간호대학생의 역량 증진에 효과가 있으므로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과 비교과 활동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간호학생의 간호역량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더 많은 표본 수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역량 기반 운영 평가를 위한 핵심 간호역량이 반영된 연구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졸업 시점에 역량 정도를 파악하는 장기 추적관찰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K. Tremblay, D. Lalancette, D. Roseveare, "A HELO Feasibility Study Report Volume 1 - Design and Implementation" pp.16-46, OECE, 2012.
- [2] K. Ananiadou, M. Claro, "21st Century Skills and Competences for New Millennium Learners in OECD Countries", pp.41-45,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2009.
- [3] UNESCO,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 for All", pp.100-107, UNESCO: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4.
- [4] C. H. Kim, B. Y. Kim, J. H. Park, H. J. Park, K. H. Lee, J. E. Chae, "A Study for Develop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Competency Index", pp.17-60,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4.
- [5] Y. H. Kang, D. C. Jung, S. H. Park, H. N. Lim, J. W. Hwang, G. I. Seol, "2014 KEDI Student Competency Index Survey", pp.3-5,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4.
- [6] M. K. Sung, "Identifying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Competencies and Suggesting Strategies to Develop a Learning Program to Enhance Competencie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1, No.1, pp171-188, 2015.
- [7] Y. I. Park et al, "An Identification Study on Core Nursing Competency",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9, No.4, pp. 663-674, 2013.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663>
- [8] S. K. Lee, S. N. Park, S. H. Jeong,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Korean Acad Nurs Adm*, Vol.18, No.4, pp. 460-473, 2012.  
DOI:<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4.460>
- [9] B. H. Kim, B. Y. Chung, J. K. Kim, A. Y. Lee, S. Y. Hwang, J. A. Cho, J. A. Kim,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Korean J Adult Nurs*, Vol. 25, No. 6, pp. 701-711, 2013.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2.24.6.701>
- [10] K. J. Park, Y. K. Kim, "Effects of a Nursing Practice Manual on Nursing Performance of Newly Graduated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7, No3, pp. 297-306, 2011.
- [11] KABONE,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Assessment Manual Book (Nursing Bachelor's Degree)", pp. 4-7,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2015.
- [12] W. Moyle, A. Barnard, & C. Turner, "The humanities and nursing: using popular literature as a means of understanding human experien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1, pp. 960-964, 1995.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5.21050960.x>
- [13] M. G. Anema, J. McCoy, "Competency-based nursing education: Guide to achieving outstanding learner outcomes", pp. 10-18,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0.
- [14] H. H. Kim et al, "Bibliotherapy through interaction", pp. 36-404, HAKJISA corp. 2010.
- [15] M. R. Choi, "Current Status of Bibliotherapy and Its Application to Counseling,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2, No.1, pp. 81-98, 2010.
- [16] K. S. Kim, "Research trend in the Korean Theses of Bibliotherapy",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journal*, Vol.6, pp. 153-187, 2007.
- [17] J. S. Yoo, S. J. Chang, E. K. Choi, J. W. Park,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 No.3, pp. 410-419, 2008.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8.38.3.410>
- [18] S. M. Muller, D. L. Dennis, "Life change and spirituality among a college student cohort", *J Am Coll Health*, Vol.56, No.1, pp. 55-59, 2007.  
DOI: <http://dx.doi.org/10.3200/JACH.56.1.55-60>
- [19] J. K. Ko et al, "Modeling of Nursing Competencies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9 No.1, pp. 87-96, 2013.
- [20] D. S. Rychen, L. H. Salganik,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pp. 14-18, Cambridge, MA: Hogrefe & Huber Publishers, 2003.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87>
- [21] I. N. Kwon, T. K. Kim,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 for Youth Activity Competenc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8, No.4, pp. 45-61, 2010.
- [22] I. N. Kwon, C. U. Chung, "Study on Youth Activity redefining the concept - focused on competence development", pp. 52-59,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 [23] Y. N. Ko, M. W. Lee,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Group Bibliotherap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2, pp. 489-504, 2011.  
DOI: <http://dx.doi.org/10.15703/kjc.12.2.201104.489>
- [24] M. H. Lee, "An Analysis of Research Behaviors in Bibliotherapy Programs-Focusing on Journal Articles during 2001-2014",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5 No4, pp. 147-169, 2014.
- [25] M. H. Lee, "Development of the Reading Guidance Course for Strengthening Core Competenci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6 No3, pp. 79-102, 2012.  
DOI: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079>
- [26] S. G. Nahm, "Understanding Effect Sizes", Vol. 35, pp. 40-43, *Hanyang Med. Rev.*, 2015.  
DOI:<http://dx.doi.org/10.7599/hmr.2015.35.1.40>
- [27]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pp. 1149-1160, 2009.
- [27] N. Razali, Y. B. Wah, "Power comparisons of Shapiro - Wilk, Kolmogorov - Smirnov, Lilliefors and Anderson - Darling tests", *Journal of Statistical Modeling and Analytics*. Vol.2, No.1, pp.21 - 33, 2011.  
DOI: <http://dx.doi.org/10.3758/BRM.41.4.1149>
- [29] Y. G. Ryu,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5.
- [30] S. K. Kim,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the Bibliotherapy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Library And Infomation Science Society*, Vol.39, No.3, pp. 213-245, 2008.
- [31] M. R. Choi, "Current Status of Bibliotherapy and Its Application to Counseling,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2, No.1, pp. 81-98, 2010.

- [32] S. Salimi, F. Zare-Farashbandi, A. Papi, R. Samouei, A. Hassanzadeh, "The effect of group bibliotherapy on the self-esteem of female students living in dormitory", J ournal of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Vol.3, pp. 89. 2014.
- [33] I. D. Yalom, M. Leszcz,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Fifth Edition", pp. 259-276, New York: Basic Book, 2005.
- [34] H. J. Jung, H. I. Chung, "Effects of self 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al Health Nurs, Vol.21, No.3, pp. 188-196, 2012.  
DOI:<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3.188>.
- [35] M. H. Kim, "A study on ego-identi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17, No1, pp. 55-64, 2008.  
DOI:<http://dx.doi.org/10.4040/jkan.2008.38.1.55>
- [36] S. N. Pyoun,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based on reality therapy for mental fitness program, Journal of reading research", Vol.32, pp. 245-277, 2014.

**김 정 회(Jung- Hoi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5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박사 수료)
- 2015년 5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역량강화프로그램, 긍정심리

**안 황 란(Hwang-Ran Ahn)**

[정회원]



- 197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1978년 1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79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이학박사)
- 2015년 5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정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간호상담, 스트레스, 역량강화

**편 순 남(Soon- Nam Pyoun)**

[정회원]



- 197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1994년 2월 :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교육심리전공)(교육학 석사)
- 2003년 2월 :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수료
- 2015년 5월 ~ 현재 : 진주교육대학교대학원 외래강사

<관심분야>

독서치료, 상담 및 행복코칭